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선언문

바야흐로 21세기는 [상생·협력의 시대]이며, [갈등해소의 시대]이다. 오늘날의 시대정신(der Zeit)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지난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추진의 과정에서 상생·협력보다는 사회갈등은 물론 공공갈등이 계속적으로 증폭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계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상생·협력과 갈등해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활동과 개선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를 보다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뜻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지한 담론을 형성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력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들어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번 표출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힘겨운 주민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우리는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 효율적 예방과 이의 체계적인 해결 노력을 통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상생협력의 사회통합적 기틀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신지하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포럼은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를 위한 포럼회원 다수의 자발적 참여의 촉진과 함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적 역량의 강화를 모색하고, 이론적 연구성과를 현장의 경험 및 대중적 이해와 결합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를 더욱 생동감 있고, 더욱 알찬 '상생과 협력의 커뮤니티'로 성장·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하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교환하는 '나자간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하여, 이러한 "담론형성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단직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있는 공론 형성'의 공간으로 조속히 자리매김되기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모든 회원들은 포럼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앞으로 회원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포럼이 항구적으로 우리 충남발전의 값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참여하고 성의껏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6. 10. 30.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회원 일동